

孫·鄭 ‘여론조사 10% 반영’ 수용

孫, 경선불참엔 ‘책임론’ 치명타...수용 급선회 鄭 “반영 비율 대폭 낮춰... 성과 있었다”

대통합민주신당의 손학규, 정동영 후보가 지난 9일 밤 대선 경선에서 여론조사를 10% 반영기로 한국민경선위원회의 결정을 전격 수용했다.

하지만 여론조사 반영 비율을 놓고 충돌했던 손학규, 정동영 후보 모두 진정한 수용보다는 경선 관을 깔 수 없다는 점에서 두 때밀리듯 수용한 측면이 크다는 점에서 추후 상당한 유희증을 예고하고 있다.

일단 이번 결정으로 손학규 후보보다는 정동영 후보 측이 나름대로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당초 손학규 후보 측이 50%의 여론조사 반영 비율을 요구한 데다 지난 8일 당 지도부에서 20%의 여론조사 반영 비율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10% 반영은 나름대로 선방한 결과로 자평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한나라당 경선에서의 여론조사 비율이 20%였고 현재 경선을 진행중인 민주당의 여론조사 반영 비율이 15%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10%의 여론조사 반영비율은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는 평가다.

정 후보 측 관계자는 “당초 여론조사 반영은 불가하다는 입장이었으나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했다”며 “10%의 여론조사 반영 비율은 나름대로 성과를 거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손 후보 측은 상당한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여론조사에서 정 후보에 비해 크게 앞서고 있는 반면 조직에서는 정 후보에 밀리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10%의 여론조사 반

영 비율은 추후 경선 결과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점을 반영하듯 손 후보는 당 지도부의 방침에 반발, 10일 아침까지 경선 불참을 놓고 고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당 지도부의 10%의 여론조사 반영 비율을 끝까지 거부할 경우, 경선 붕괴의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에서 아예 경선에 여론조사 비율을 반영하지 않아도 된다는 파격적인 제안과 함께 수용 입장으로 선회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가 경선 막바지에 실시된다는 점에서 경선 결과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여론조사가 현재 시점이 아니라 경선 막바지 시점에서 실시되기 때문에 순회 경선의 결과가 여론조사에 극명하게 반영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두 후보 측에서도 경선 막바지에 실시되는 여론조사보다는 추석 전 실시되는 첫 4개 지역 경선에서 누가 승기를 잡고 앞으로 치고 나가느냐가 승부처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대통합 민주신당 관계자는 “여론조사 반영 비율이라는 큰 고비는 넘었지만 모바일 투표, 여론조사 문항 등 최종 경선까지는 아직까지 많은 지뢰밭이 남겨져 있다”며 “특히, 당 지도부의 지도력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본경선 여론조사 반영 문제로 갈등을 빚었던 대통합민주신당 손학규·정동영 대선 예비후보가 10일 청주에서 열린 합동연설회에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17대 대선 범여 경선 현장

신당 후보 5명 ‘세종시’ 공방 치열

○대통합민주신당 대선후보 5명은 10일 충청 지역의 핵심현안인 행정중심 복합도시 ‘세종시’의 발전 방향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노무현 대통령이 2002년 대선에서 행정수도 건설을 핵심공약으로 내걸었던 데다 청와대의 선거 개입이 노골화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2002년 대선에서 행정수도 건설을 핵심공약으로 내걸었던 데다 청와대의 선거 개입이 노골화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2002년 대선에서 행정수도 건설을 핵심공약으로 내걸었던 데다 청와대의 선거 개입이 노골화되고 있다.

도 특유의 사투리를 섞어 농담을 던졌고, 손학규 후보는 보건복지부 장관 재직 시절 오송 생명과학산업단지를 만들었던 사실을 거론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또 한명숙 후보는 “저는 청주 한지 한 명숙이다. 청주가 저의 분가”라고 개인적인 인연을 강조했다.

정동영 후보는 “충북에서 반드시 1등을 해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를 꺾고 12월에 보람에 안겨드리겠다”고 말했다고, 유시민 후보는 “현재가 조선시대 경국대전을 들어 행정수도를 반대할 때 제가 TV토론에 나와 꼭대 올리면서 싸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손학규 “靑 고위인사 경선 개입” 비판

○신당 손학규 후보는 10일 여의도 선거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신당에 구태정치, 조직·동원선거가 판을 치고 청와대의 선거 개입이 노골화되고 있다”며 “최근 현직(청와대) 고위층 인사들에 의해 나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라는 압박이 자행되고 있다”고 주장, 파문이 일고 있다.

손 후보는 이날 “내부논리에 의한 조직선거, 내부선거, 청와대 선거 개입 등의 구태를 보이면서 어떻게 12월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겠나”며 “나

손학규는 한국정치의 발전을 가로막는 이러한 구태와 악습에 맞서 끝까지 싸워 나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상호 대변인은 “청와대 모 수석, 모 고위인사가 우리를 돕고 있는 주요한 활동가들에게 전화로 걸어 ‘어떻게 손학규를 도울 수 있느냐’는 형태로 압박 전화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이런 것들이 청와대의 노골적인 경선개입이 아니냐는 격양된 분위기가 캠프 내부에 있다”고 밝혔다.

유시민 “취재지원 방안 정부 양보 제안”

○신당 유시민 후보는 10일 “정부의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은 큰 방향에서 맞고 대통령의 문제의식에 공감하지만 불필요한 감정적 충돌은 정부-언론간의 건강한 긴장관계에 도움이 안된다”며 정부가 일정 부분 양보를 할 것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공개 제안했다.

유 후보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전날 정일용 기자회견을 만나 의견을 수렴한 사실을 소개하고 “그간 대선 예비후보로서 정부와 언론계가 잘 대화해 해결했으면 하는 원칙적 입장을 표명했지만 좀 더 책임감 있게 말씀드리려 한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이인제 “대선 중도개혁 대 수구보수 대결”

○민주당 이인제 대선 예비후보는 10일 “이번 대선은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얘기하는 ‘실용 대 이념’이 아니라 ‘중도개혁 대 수구보수’ 대결구도”라며 자신이 벌여줄 단일후보가 되면 국민들의 폭넓은 지지를 대통령에 당선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오는 16일 민주당 대선후보

선출을 앞둔 전국순회 일환으로 경북도의회를 방문해 기자간담회를 갖고 “수구체질을 벗어나지 못한 한나라당이나 5년간 국정과제를 초래한 열린우리당의 재판을 받을 단일후보가 되면 국민이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문국현 “이명박 동해권 공약 짝퉁식 모방”

범여권 ‘장외후보’인 문국현(사진) 전 유한칼베리 사장은 10일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신동북아 경제협력 구상’에 대해 자신의 한동해 경제협력 구상을 ‘짝퉁식’으로 모방한 공약이라고 비판했다.

문 전 사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가진 ‘대선 D-100일’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과는 대치하면서 한동해 경제협력 구상을 짝퉁식으로 모방하는 분이 있다”며 “진북좌파를 언급하는 구시대적 패러다임으로 동북아 경제협력은 물론, 대한민국의 새로운 동력을 만들 수 없다”고 이 후보를 비판했다.

그는 “북한과의 평화관계와 북미 수교 없이는 러시아의 협력도 어렵고 일본이 미국의 동요없이 참여할 리 없으므로 한동해권 경험은 거의 불가능하다”며 “북미 수교를 내년 가을까지 만들어내는 게 이번엔 대통령이 될 사람의 첫째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문 전 사장이 지난날 발표했다던 ‘한동해권



‘신동북아 협력구상’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자발적으로 개방하면 남북경제공동체 협력협정을 체결해 한국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노동력, 러시아의 천연자원을 결합한다는 내용이다.

독자 창당 행보를 하고 있는 그는 “우리쪽에 합류하려는 분들은 (대통합민주신당) 경선이 끝나는 10월 15일 이후에 합류의사를 표시하면 경선불복으로 비칠 수 있으므로 경선 전에 의사표시를 하는 게 상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경제협력벨트’ 구상은 러시아의 자연자원과 미국의 시장, 일본의 배상금 자본, 북한의 인적자원을 한국의 경영능력과 결합한다는 게 골자이며, 이명박 후보의 ‘신동북아 협력구상’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자발적으로 개방하면 남북경제공동체 협력협정을 체결해 한국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노동력, 러시아의 천연자원을 결합한다는 내용이다.

독자 창당 행보를 하고 있는 그는 “우리쪽에 합류하려는 분들은 (대통합민주신당) 경선이 끝나는 10월 15일 이후에 합류의사를 표시하면 경선불복으로 비칠 수 있으므로 경선 전에 의사표시를 하는 게 상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명박 고소 중립의무 위반” 누리이트, 盧대통령 고발

누리이트 부정선거추방운동본부는 10일 오전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 박성수 대통령 비서실 부비서관이 ‘공직선거법 9조’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위반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청와대가 지난 7일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와 핵심 당직자들을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소한 것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공직선거법 9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청와대가 정당하게 사용돼야 할 국가공공력을 악용해 다가를 대선국면에서 고소고발을 남발함으로써 선거과정을 혼탁케 하고, 정당의 정치행위를 지나치게 확대해석해 강경대응함으로써 신공작정치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광주시의회 진선거 의원 민주당 탈당 신당 합류

광주시의회 진선거(북구 제1선거구)의원이 10일 민주당을 탈당, 대통합민주신당에 합류했다. 광주 북구의회 양희성 의원이 동반 탈당했다.

광주시의회는 진 의원의 탈당으로 전체 의원 19명 중 대통합민주신당이 6명, 민주당 12명, 무소속 1명으로 재편됐다.

진 의원은 이날 탈당 성명을 통해 “시민이 바라고 대한민국이 바라는 새로운 정권 창출을 위해 미력이나마 보태고 싶다”고 밝혔다.

호남지역 맹주 자리를 놓고 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당이 세 불리기에 나선 상황에서 진 의원의 탈당은 대통합민주신당의 시외의원 내교섭단체 구성을 위한 교두보 마련과 신당 출범에 산파역을 한 박광대 시장과의 관계 등이 맞물린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산행안내

9월 11일(화)

- ▲광천산악회 머유산(쌍장산) 9월 11일(화) 07시 30분 광천과 춘소(나사골캐브, 우병원정류) 출발 T.010-3617-9496, 018-610-3300
- ▲임주산악회 안주 운암산 9월 11일(화) 08시 임주체육관(분예회관후부경유)출발 ※전착순예약취소 T.011-608-2208
- ▲바람산악회 전북 전안 신라산 백운봉 계곡 9월 11일(화) 07시 50분 임주체육관(한국병원, 테니스, 분예회관경유)출발 ※다음카페:바람산악회 T.010-9000-6920
- 9월 12일(수)
- ▲광주한국산악회 강원도 두타산, 청옥산 9월 12일(수) 밤 12시 여주체육관(분예회관경유)출발 ※예약바람 T.011-615-2279
- ▲정목산악회 경남 함천군 가회면 보산 9월 12일(수) 08시 광주교원공체회관(분예회관후부경유)출발 T.011-616-5917
- ▲광주이대산악회 지리산 함양북부위 상대봉 9월 12일(수) 08시 동아병원(분예회관후부경유)출발 ※다음카페:이대산악회 T.011-609-0588
- 9월 13일(목)
- ▲가고파산악회 충북 속리산 9월 13일(목) 07시 30분 광주역(진원동)해마르점경유 출발

※다음카페:광주가고파산악회 T.011-629-2678, 011-9612-5191

▲광목산악회 남부유선 무등산(남동동)월성계곡 9월 13일(목) 07시 30분 대인관광(신평회관경유)출발 T.011-9614-2729

9월 15일(토)

▲광주도요산악회 대전 서장산 9월 15일(토) 08시 광주역(분예회관후부경유)출발 http://cafe.daum.net/gwadoyosan T.011-608-4267, 011-634-2044

9월 16일(일)

▲광주우보회 부인 상서봉~우금산~상여봉~노승봉 등주 9월 16일(일) 07시 30분 임주체육관(광주역 경유)출발 T.011-9600-5364, 019-656-9498

▲광주보라미산악회 전북 부안 내면산 9월 16일(일) 07시 30분 광주역(분예회관후부경유)출발 ※다음카페:광주보라미산악회 T.011-645-7796

▲무등산악회 경남과거늬사 의수도산, 원대대산 9월 16일(일) 07시 30분 분예회관(분예회관후부경유)출발 ※다음카페:광주보라미산악회 T.010-3604-2903, 011-602-6278

▲호남산악회 충남 공주 계룡산 9월 16일(일) 07시 30분 진원동(광주역, 분예회관경유)출발 ※다음카페:호남산악회 T.010 6246 7231, 011 605-5034

▲빛고을외모를 남해 칠곡산 9월 16일(일) 07시 10분 임주체육관(광주역고래시멘트, 봉곡주출발)출발 T.011 609 7159, 010 6601 9774

▲전남산악회 산청 문월산 9월 16일(일) 07시 광주역 T.010-9776-3630, 011-642-5197

▲다음카페:(사)요산요수산악회 회산(외포봉) 9월 16일(일) 07시 전대병원급실건너(지하철강남역)출발 (광주역, 분예회관경유)출발 T.011-620-2002

▲광주웰빙산악회 전북 변산 내소산(광음봉-쌍선봉) 9월 16일(일) 07시 30분 광주역광장(분예회관경유)출발 ※다음카페:광주웰빙산악회 T.011-617-3393, 011-624-1476

▲팔성산악회 거문도 백도 등백성등대 관자죽재 수월산 9월 16일(일) 05시 30분 백운노티라 관성관광출발 ※다음카페:팔성관광(회비:65,000원, 도서라지책) T.011-605-3477

▲오산의 충북 괴산 백악산 9월 16일(일) 06시 30분 광주역출발 T.016-611-1509

▲광주새무등산악회 구례군 문취면 오산 봉우리봉 9월 16일(일) 08시 대인관광출발 T.011-609-8533, 011-616 6300

발견 동방블로초

우리나라에 기적이 일어났다!!

블로초

블로초는 풀이 아니고 물이었음

올 추석선물은 “동방블로초”로!

나이 많은 어르신,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에게 최고의 선물!!

=시판기념 특별 할인판매 =

500ml들이 24명 (1박스) 38,000원
900ml들이 24명 (1박스) 58,000원
배송료 무료

◎입금계좌 (농)641076-51-025857(김현영)◎
※입금 후 전화주시기 바람

천지영천수식품 070-7012-0246
www.cjyc.co.kr (017) 291-3115

마술 (Magic) 무료 수강생 모집

마술이란 강동래 사령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매신(제임)이다. 마술을 통하여 어린이에게는 꿈과 야망의 향상을, 성인에게는 개인의 정서(정) 및 취미생활로 활용하여 봉사활동은 하시는 분은 웃음을 잃은 사람에게 용기와 꿈과 희망을 주는 데 목적이 있으며, 본 무료교육 프로그램은 마술에 관심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 사해봉사처에서 실시하는 무료강좌 프로그램입니다.

※모/집/대/상※

- 유치원, 초·중등교사로서 수업에 활용하실분
- 봉사활동 및 취미로 배우시려는 주부 및 어르신
- 마술에 관심있는 초·중·고등생 및 일반인
- 소극적인 성격 개선 및 각종 발표회에 응용
- 비즈니스를 위한 영업전략에 활용하실분
- 초·중등생 개인종목으로 및 발표회, 행사
- 초·중등 특기적성 마술교사로 활동하실 분(취업추천)

무료 초·중등 어린이 마술 교실 수강

마술은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과 아이큐 향상 및 요령 학우로 떠오르는 IQ(지능)시수도 높여준다. 특히 성격 개선 및 각종 발표회에 활용될 수 있다.

★교육기간: 주1회 8주 2개월
★교 육 비: 무료(미술도구비 별도, 개인소장)
★교육장소: 동부경찰서 2층 무등고시학당
★접수방법: 선착순 20명 전화 예약 접수(개인교습)

○추석에 가족친척들이 모인자리에 마술을 연출해 보세요, 즐거운 추억이 됩니다.
○각종행사, 마술 출성공연, 어린이 관련행사, 동문회, 교회행사, 마유회

매직&매직 아카데미 ☎(062)526-2500